

※ 고대국가의 정치조직과 행정구역의 비교 ※

구 분	삼 국 시 대			통 일 신 라	발 해
	고 구 려	백 제	신 라		
관등, 통치체제 ↓ - 삼국이 비슷하게 운영 - 종래의 군장세력들이 왕권의 아래에 통합, 편제	10여 관등(4세기경) - ~ 형 : 연장자, 부족장 - ~ 사자 ·부족장의 심부름꾼 ·지방에서 조세를 징수, 조달	* 16관등(고이왕 때) - ~ 술, ~ 독, ~ 덕 * 6좌평 = 6전조직 ※ 삼국 중에서 백제만 정비(공통×)	17관등(법흥왕 때) - 골품제도와 결합하여 운영 - 대~, ~찬	* 6전조직의 정비 * 권력의 핵심은 모두 중앙귀족(진골)이 독점	* 3성 * 6부
귀족합의제(귀족회의체) -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 - 왕권의 약화(견제) - 국왕중심의 귀족정치를 의미 - 삼국의 공통	제가회의(수상 : 대대로 = 막리지)	정사암회의(수상 : 상좌평)	화백회의(수상 : 상대등)		정당성(대대상)
	※ 수상 : 귀족회의에서 3년마다 선출(왕이 임명×)				
수도 = 중앙의 행정구역	5부	5부	6부		
지방의 행정구역 - 부족적 성격이 행정적 성격으로 바뀜 - 정복지역의 세력 크기에 따라 성, 촌 단위로 개편	5부(육살) → 성(성주, 처려근지)	5방(방령) → 군(군장)	5주(군주) → 군(당주, 태수), 현	9주(총관 → 도독)	15부(도독) → 62주(자사) → 현(현승)
	※ 삼국의 지방장관이 군사와 행정을 담당(국왕중심의 일원적 통치체계) ※ 삼국의 지방조직은 군사제도와 밀접(지방조직은 군사적 성격이 강함) ※ 촌(말단 행정단위)에는 토착세력을 촌주로 삼아 통치(지방관의 파견×) ↓ 지방관의 보좌, 행정과 군사의 실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 담당 ※ 지방관의 수가 많지 않아 주요 거점만을 지배하고 나머지 지역은 자치를 허용하여 간접적으로 주민을 지배			* 행정적 성격이 강함 * 외사정의 파견 → 지방관의 감찰 * 상수리제의 실시 → 지방세력의 견제 * 한주, 삭주, 명주, 웅주, 상주, 무주, 전주, 강주, 양주	
특수행정조직 - 지방세력의 통제 → 중앙집권의 강화 - 지방문화의 중심지 → 지방의 균형발전	3경 : 국내성, 평양성, 한성	22담로 - 무령왕 - 웅진시기	2소경 - 중원경(충주) - 동원경(강릉)	* 5소경(사신) - 금성의 지역적 치우침을 보완 - 중원경, 서원경(청주) 남원경, 북원경(원주) 금관경(김해) : 동원경× * 향, 부곡 ----- - 특수행정구역 : 천민× - 농업, 목축, 수공업 등에 종사	5경(상경, 중경, 동경, 서경, 남경) : 북경× → 고려 - 향, 부곡 - 소 : 수공업, 광산업 등에 종사 - 고려후기에 일부 군현으로 승격 → 조선초기에 소멸